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6년 4월 24일 (제843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패러다임의 변화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가 있었다. 그 개구리는 하늘이 둥그란 원형인 줄 알았다. 마음만 먹으면 자기도 한 바퀴쯤은 쫓아갈 만큼의 크기인 줄 알았다.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내려 우물이 넘치는 바람에 개구리가 우물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나와서 하늘을 보니 우물 속에서 보던 하늘이 아니었다. '세상은 넓구나.' 개구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것이 패러다임의 변화다. 역사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

패러다임(paradigm)이란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로서의 인식체계를 말한다. 요즘 각 분야에서 외치는 것이 바로 이 패러다임의 변화,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이 시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뇌 혁신을 말하는 것으로, 고착된 사고를 버리고 생각의 혁명적인 변혁을 말한다. 왜? 생각이 바뀌면 말이, 말이 바뀌면 행동이,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기 때문이다.

서커스단의 코끼리는 말뚝에서 다섯 걸음만 걸어 나가면 찢어진 전기가 흘러 깜짝 놀란다. 그래서 절대 말뚝에서 다섯 걸음 이상을 나가지 않는다. 말뚝을 뺏아봐도 나갈 생각을 안 한다. 이게 고착된 사고다. 이것을 못 깨기 때문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도 주인이 주는 당근이나 받아먹고 사는 것이다. 서커스나 하는 코끼리, 우물 안 개구리의 생각을 깨야 큰일을 이룰 수 있다. 꼭 성전이 있어야 목회할 수 있다는 생각을 깨고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30년 동안 금요철야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수요일 철야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깨고 시도한 것 역시 생각의 전환이 아닌가. 구태의연한 사고, 교과서식의 사고, 고착된 사고를 버릴 때 찬란한 미래가 박수를 치며 달려올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된 축복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된 축복을 받아라.”

지난 14일, 제천부활예수중심교회에서 있었던 입당예배에서 총회장 목사님은 제천교회 담임인 예수만 목사에게 오늘 설교제목을 몇 번씩 반복해서 말하게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만 목사를 위하여 예비된 축복을 받아라.”고 말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신 목사님의 뜻이 가능되었다.

“고린도전서 2장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기 내가 온 것은 제천교회 담임인 예수만 목사의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만 목사가 기도원에서 나를 찾아와 제천에 교회를 세울 테니 입당예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만 해라. 집회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만 목사는 6개월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정말 애통 중에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실과 내 비서진에게 준비 다 했으니 목사님이 오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내게 문자로 ‘목사님 방에 CCTV 있지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했는지 다 알잖아요. 하나님도 목사님이 하

간 은혜를 받던 중 누가복음 5장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남편과 함께 새벽에 작정기도를 하고 배를 빌려 동해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들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번 하더니 배를 샀습니다. 그의 유명한 일언이 있습니다. ‘동해바다는 내 금고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 제주도 박 집사가 ‘제주 앞바다는 내 금고다’라며 작정기도하고 낚시를 하니 다금바리가 역수로 잡혔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재정을 다 담당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직업을,



제천부활예수중심교회 입당예배(2016년 4월 14일)

다 함과 같으니라’(고전2:9)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것으로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온 예수만 목사를 위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납니까?”

목사님은 제천교회에 의자와 TV, 그리고 승합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듣고는 설교 도중에 “이것을 누가 해놓겠느냐?”고 하자 뜻있는 성도들이 손을 들었다.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사실 제천교회 입당예배는 급박하게 일정이 잡혔는데, 그 이유에 대해 총회장

신 말씀 다 짚어놓았습니다. 어떡하실 겁니까?라고 했습니다. 나는 기도하다가 제천에 내려가야겠다 결정하고 급박하게 일을 진행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위하여 수양이 준비되어 있었고, 느헤미야를 위해 아닥사스다 왕이 준비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요셉을 위하여 바로가 준비되어 있었지요. 제가 해외 집회에 가면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주지사 등 권력자와 그 지방의 유지들을 미리 준비하셔서 집회를 돕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속초교회 김사랑 집사가 있었습니다. 가난이 지긋지긋했던 그는 기도원에서 4주

배필을, 집을, 사람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물에 빠졌어도 물고기를 물고 나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후에 25년 동안 목사님의 비디오 테이프를 복사해서 전도하고 있는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왔다. 목사님은 “당신이 제천교회 장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만 목사를 위하여 하나님은 장로도 예비하셨다.”며 기뻐하셨다.

물속에서 물을 찾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축복과 행복이 있는데 어디서 헤매고 있는가!

제천교회의 무궁한 부흥과 성장을 기대한다.

신묘수

jesus7857@gmail.com



제천부활예수중심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기대한다



제천부활예수중심교회 담임 예수만 목사



입당예배 후 모든 성도들을 안수해주셨다

구독신청 02) 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잠22:26~27)

절대, 절대 보증서지 말라

여보게!
내가 오늘 스승의 말을 버리고 가장 친한 친구의 말을 택한 것은 절실하게, 간절하게 부탁할 일이 있어서네. 자네는 절대, 절대 보증을 서지 말게. 보증은 절대 안 되네. 내가 누차 말을 했는데도 우리 성도들 중에 또 보증으로 인해 재산을 다 날리고, 패가망신을 당한 자가 있지 뭐가. 정말이지 답답하고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이제 와서 어쩔 도리가 없지 않은가.
보증이란 한문을 잘 보게나. 보증(保證)의 보(保)는 ‘사람 인(人)’ 변에 ‘어리석을 때(呆)’로 이루어져 있네. 때(呆) 자를 분석해보면 ‘입 구(口)’와 ‘나무 목(木)’으로 되어 있어 결국 사람의 입으로 어리석은 일을 한 자는 때를 맞는다는 뜻이지. 또 증(證)은 ‘말씀 언(言)’ 변에 ‘오를 등(登)’으로 그 말에 올라탔다는 뜻이니, 결국 보증이란 어리석은 일에 내가 올라탔으니 때를 맞는다는 뜻이 되네. 곧 내가 대신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라네.
나도 보증을 썼다가 엄청난 손해를 본 경험이지. 사업할 때는 ‘이사장님’, ‘회장님’ 하며 엉덩이를 툭툭 쳐주니까 우쭐해서 보증을 서준 적도 있고, 친구를 잃을까봐 보증 서준 적도 있고, 또 가족이 돈을 빌렸는데 채주가 와서 돈을 갚으라고 하니깐 옆에 있던 내가 ‘내가 해결게’라고 순간 욱해서 말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어서 갚으라고 하면서 내 말이 녹음된 소형녹음기를 트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내가 떠맡은 일이 있네. “내 아들이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얹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잠6:1~2)는 말씀이 딱 맞네. 내 입의 말로 내 스스로가 얹혔고,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힌 셈이니 스스로 자충수(自充手)를 둔 격이지.

보증서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

여보게!
옛 어른들이 말씀하시길 ‘보증서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고 했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다네.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이 되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네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잠22:26~27),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불모잡힐찌니라”(잠27:13). 자기가 자는 침상까지 빼앗기니 뭘들 남이나겠는가. 그러니 가족은 어찌 될까? 또 보증을 선 자는 몸이 불모로 잡힌다는 거야. 실제로 우리 성도들 중에

돈을 못 갚자 딸을 인신매매로 넘기겠다고 협박을 받은 자도 있다네. 열왕기하 4장에도 엘리사를 따르던 신학생이 빚을 남겨놓고 죽자 나중에 채주가 와서 빚 대신 아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협박한 사건이 있지 않은가.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잠22:7)는 말씀이 성경에 있다네. 그런데 말일세. 예전에는 인감도장을 찍어야 보증이 되었는데, 요즘은 전화로도 보증이 되더구먼. 우리 성도가 당한 일인데, 친구가 말하길 ‘전화가 오면 그냥 대답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설마 무슨 일 있을까’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전화에 응했는데, 나중에 보니 자신도 모르게 보증인

이 되 어 있 었 다 고 하더구먼. 내 말도 인감도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 더욱 신중해야 한다네. 혹시 이미 보증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나? 그 방법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네. “내 아들이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네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군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잠6:3~5). 그물에 갇힌 새는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 나올 수 없네. 사냥꾼이 풀어줘야 나올 수 있지. 그러니 채주에게 찾아가서 진심으로 빌게. 한 번 찾아간다고 되겠나. 재판장을 찾아간 과부처럼 될 때까지 찾아가서 빌면 일이 해결될 수 있을 거네. 만일 보증을 서주고 싶으면 내 능력 안에서 서주게나.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으로 서주게.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지.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난 자를 주막에 데려가서 살피고는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 올 때에 갚으리라”(눅10:35)고 했지.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지. 또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하여 주인 빌레몬에게 담보의 말을 전하는 게 빌레몬서에 나온다네. 이렇듯 끝까지 자기가 책임을 다할 수 있을 때는 보증 서게나. 또 요새는 보증보험을 들어주는 방법도 있더군. 보증을 서달라고 친구가, 교인이, 가족이 말할 때 정말 다섯 번 생각할 것 열 번 생각하길 바라네. 여보게!

그러면 자네는 이런 질문을 내게 하겠지? 주님을 위해서 보증을 서는 건 괜찮은지 말일세. 그건 개인의 믿음의 문제라네. 믿음이 있으면 서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안 서는 게 옳다네. 괜히 목사의 강요나 주위의 권고로 보증을 서고 나서 후회하게 되면 교회마저 떠나게 되니까 하는 말일세.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사업을 하던 사람 아닌가. 아직 목사가 되기 전인 집사시절에 내가 운영하던 인복유치원 옆에 교회가 성전건축을 했다네. 그 교회 목사님과 여러 모양으로 가까운 사이였지. 그런데 그 교회가 공사 중 자금이 모자랐던 모양일세. 어느 날 그 교회 장로님 두 분이 나를 찾아왔지. 어음을 좀 끌어달라는 거야. 사실 좀 망설였다네. 그랬더니 장로님 중 한 분이 내게 이렇게 말하더군. 하나님 일에 보증서는 건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그 말이 내 마음을 찼고,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어음을 끌어줬다네. 그래서 교회가 완성되었지. 부도났냐고?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절대 부도 안 나지. 여보게!

이제는 스스로 보증이 된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하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시네. 그 분은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

로서 새 언약의 보증이 되셨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자신의 피로 의롭게 된 우리들을 보증하시고 사람에게에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보증하셨다네. 스스로 우리를 책임지신 거지.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당신의 말이 인감도장이다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히7:20~22).
그 분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뿐 아니라 병에 대해, 저주와 가난에 대해서도 보증이 되었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사53:5).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네. 그 분은 승천하시면서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고후1:21~22). 무슨 말인지 알겠나? 우리를 보증하신 예수님이 가시면서 다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성령시대야.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 다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지.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아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성령이 그에 따른 보증을 해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히6:17~18).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고,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되는 거라네.
여보게!
오늘 보증에 대한 이야기를 했네. 세상 보증에 관해서는 정말 신중해야 하는 것 잊지 말게. 또한 죄인인 우리의 보증이 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게나.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잠17:18).



총회장 이초석 목사

::객원컬럼::

::오늘의 메시지::

겸손(謙遜)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유비가 입신양명을 위하여 스승의 추천장을 가지고 길을 나섰는데 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에는 다리도 없고 강을 건너다 줄 사공도 없었기에 옷을 건고 아직 얼지 않은 겨울 강물을 건넌습니다. 몸을 떨면서 옷을 추스르고 있는데 건너편에서 영감님 한분이 건너와서 자신을 업고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유비가 주저하지 않고 건너가서 영감님을 업고 건너오니 하시는 말씀이 건너편에 자신의 보따리를 두고 오셨다고 합니다. 유비는 자신이 다시 건너가서 그것을 가지고 오겠다고 하니 영감님은 자신의 보따리니까 자신이 가지고 와야 한다고 억지를 부렸지만 유비는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다시 그 영감님을 업고 강물을 건너가서 그 보따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영감님이 유비에게 묻습니다. “이보게 젊은이, 어떻게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나?” 유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불평을 했다면 이전에 했던 선행이 모두 허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감님은 저기 멀리 있는 고목나무를 바라보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유비는 그 고목나무를 한참을 바라보다가 품에 있는 추천서를 찢어버리고 자신의 고향 누상촌으로 돌아와 뚝자리를 짜서 팔아 생계를 연명하며 밑바닥부터 민심을 살피고 사람을 얻어 천하통일의 꿈을 펼쳐가게 됩니다. 그 때 유비가 본 고목나무는 위로 올라갈수록 나뭇잎이 말라 비틀어졌는데 밑동에 가까울수록 싱싱한 새잎이 돌아나는 것을 보고 천하를

얻으려면 낮아져야한다는 것을 깨닫고 벼슬하러 가던 길을 멈추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사람도 지위가 높아질수록 더욱 더 자세를 낮추게 되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마음을 얻게 되는 법입니다. 바다에 물이 모여드는 것은 바다가 지면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막10:44).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겸손입니다. 사울이 겸손할 때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 교만해지므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즉 선졸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전10:12). 악한 마귀의 기만전술에 넘어가지 말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넘어지지 않는 삶의 비결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전능하신 하나님

전주교회에 부임했을 때의 일이다. 교회 부채가 2천만 원이 있었는데 총회장 목사님께서 해결해주신다는 말씀에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었다. 하루는 새벽 3시쯤 되어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내가 준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이다. 기도해서 응답받아라.” 하시고는 전화를 탁 끊어버리시는 것이다. 어안이 병병. 아무 생각도 없고, 기도도 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하루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눅1:37~38). 이때부터 나는 “하나님! 목사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루어주소서...”라고 기도했다. 그런데 진짜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지나던 나그네가 예배에 참석해서 700만원의 십일조를 하고, 사고를 당해 보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던 집사가 합의가 됐다며 670만원의 십일조를

하고, 청년들이 적금을 해약해서 헌금을 하고, 성도들이 힘을 합치더니 순식간에 부채를 갚고, 더 좋고 넓은 곳으로 성전을 이전하여 목사님을 모시고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총회장 목사님이 축복하신대로 된 것이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말씀에 의지했던 베드로가 만선의 기쁨을 누렸고(눅5:5), 백부장의 하인이 나음을 입었고(눅7:7),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으며(요11:44), 위경에서 건지시고(시107:20), 내 길에 빛을 비추어 주시며(시119:105),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다(요2:5).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다. 문제는 풀라고 주시는 것이요, 문은 열라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김상욱 목사

ksw9669@hanmail.net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잠언 12:1)



::세상을 보는 창::

::귀를 기울이세요::

화향백리 인향만리

‘화향백리(花香百里) 인향만리(人香萬里)’라는 말이 있다. ‘꽃의 향기는 백리를 가고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는 뜻이다. 즉 꽃향기나 향수냄새는 바람결에 따라 떠나지만 사람의 향기는 마음에 머물러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이다. 사람에겐 인격이란 향기가 있는데, 그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 정직한 마음, 믿음을 주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다. 그런데 인격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은 아니다. 인격은 사람 됨됨이를 갖춘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품성이다. 샤넬 No.5는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 여성들의 사랑을 받아온 클래식한 향수다. 샤넬 No.5의 향수 원액 28g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그마치 45kg의 장미 꽃잎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렇듯 아름다운 향기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정성과 노력을 통하여 만들어진다. 출애굽기에 보면 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으로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이 나온다. 소합향과 풍자향은 나무에 상처를 내어 거기서 나오는 진액에서 얻는 향이고, 나감향은 거북이의 등껍질이나 조개껍질을 깨뜨려 갈아 만든 향이라고 한다. 이

모든 향들의 특징은 깨어지고 부서지고 짜내서 얻을 수 있는 향이다. 우리 주님도 이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스스로 깨어지고 부서지셔서 온 세상을 구원한 생명의 향기가 되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다. 우리가 스스로 풍기는 나 자체의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그리스도에게 전달받은 향기’, ‘그 분과의 사귄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알게 모르게 묻고 배여, 내 인격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조금씩, 조금씩 풍기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사방으로 퍼져 나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용하셨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는 충성된 일꾼들을 찾고 계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가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들어 사용하신다. 우리도 향나무처럼 우리를 치는 도끼날에조차 향을 뿌려, 그 흥기를 향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조그만 향기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눈부시고 아름다울 것이다.

이정금 전도사

jungkm@nate.com

어메이징 그레이스

인생의 중심인 목소리를 잃고 읊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한 테너를 소개하려고 한다. 지난 주 인터뷰 촬영차 영화 ‘더 테너 리리코 스피토’의 주인공 테너 배재철 씨를 만났다. ‘리리코 스피토’라는 뜻은 ‘섬세하고 시적인 표현을 하는 심장을 관통하는 목소리’라는 뜻으로, 최고의 테너나 소프라노 등에게 칭하는 최고의 찬사이다. 그런 찬사를 받았던 배재철 씨는 오페라 가수로 활동하던 전성기 시절 영국 ‘더 타임스’로부터 ‘100년 만에 한 번 나올만한 목소리’라는 극찬을 받았고,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 국제 콩쿠르에서 여러 차례 우승을 한 성악계의 재원이었다. 또 좀처럼 동양인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는 독일 자르브뤼켄 극장과 전속 계약을 맺고 오페라 주역가수로 활동했었다. 이렇게 잘 나가던 그는 어느 날 갑상선암이라는 병에 걸린다. 이 갑상선암은 고음을 내야만 하는 오페라가수에게는 치명적인 병으로 앞친 데 덮친 격으로 성대 한 쪽이 마비되고, 가슴과 배를 나누는 근육인 횡격막의 마비까지 오게 된다.

이런 좌절의 순간 테너 배재철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재점검하게 된다. 교회 성가대를 하며 성장했지만 세상 노래를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한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기에 이른다. 이런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다시 노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셨다. 그 후, 그는 성대기능 복원수술을 받게 되고, 수술 중 성대 상태 점검을 위해 노래를 부르게 된다. 새 성대로 그가 처음 부른 노래는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로, 수술실에 울려 퍼진 찬송은 그동안 그가 부른 모든 곡을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선율이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꾸준한 재활로 전성기 시절 목소리의 50%이상을 회복했고, 찬양사역자로 각 교회와 강연장을 다니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 관객과 공감하는 노래를 하는 행복한 성악가 배재철, 그의 삶을 다룬 영화 카피 ‘모든 것을 잃은 순간, 최고의 무대가 시작된다’처럼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현재는 나의 몫!

최근 자녀학대에 관한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면서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이렇게 학대를 입삼는 부모들이 대부분 진술을 할 때 '나도 어려서 맞고 자랐기 때문에 아이를 때렸다'는 말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킨다고 한다. 하지만 마이크 로소프트 설립자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화목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난 건 죄가 아니지만, 당신의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 건 당신의 잘못이다.' 참으로 공감 가는 말이 아닌가?

누구나 성장과정에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지만 누군가는 그러한 상처를 이겨내고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감싸줄 수 있는 큰 그릇으로 성장한다. 사사기에 기록된 입다는 그런 면에서 참으로 대단한 인물

이다. 기생인 어머니를 통해 서자로 태어나 정실 자식들의 미움을 실컷 받고 집에서 쫓겨나 떠돌이 시정잡배들과 함께 젊은 시절을 보냈으니 요즘 말로 조폭이나 문지마 범죄자가 됐어도 이상할 것이 없었다(삿11:2~3).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는 그러한 상처를 잘라내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넓은 포용력을 가진 인물로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그가 자신을 쫓아낸 형제들이 암몬 족속의 침범이 두려워 그를 찾아와 대신 전쟁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을 때, 과거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 그들을 해하거나 상처를 핑계 삼지 않고 결국 이를 수락하여 전쟁에 나선 것이 그렇다. 또한, 암몬족속을 무조건적으로 살육하려는 모습이 아니

라 율법의 가르침대로(신21:10~12) 대화를 통해 전쟁도발의 이유와 설득을 시도하는 모습을 봐도 화평케 하려는 태도와 차분한 일 처리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물론 전쟁에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영접하러 나오는 자를 번제로 바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외동딸이었던 것은 큰 실수였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실수 앞에 어떻게 행동했는가? 어린 시절 자신의 상처를 구실삼고 이런저런 변명으로 약속을 꾀했는가? 아니다. 그는 만약 하나님께 서원한 바를 어긴다면 개인이 받는 저주는 물론이요 자신을 쫓아낸 형제들을 포함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엄청난 시련이 닥칠 것을 알고 결국 그 서원을 이행했다. 무엇보다 그

의 딸이 자신의 아버지께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도록 권하며 자기 자신을 번제로 드린 것만 봐도 아버지 입다의 신앙과 마음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으며, 이는 평소 입다가 자신의 상처를 딸에게 전가하지 않고 사랑과 신앙으로 키웠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후 입다는 에브라임까지 격파하며 민족의 영웅이자 하나님께 기억된바 되는 사사로 인정받는다. 상처는 과거이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어떤 에너지로 승화시킬 것인가는 나의 몫이다. 과거의 상처조차 현재의 자양분으로 승화시키도록 기도하고 결단하는 성숙한 우리가 되길 소망해 본다.

하인명
renming@daum.net

::Edu SSection::

오늘의 계란을 먹지 말고 내일의 암탉을 키워라

삼십년 이상 모녀지간을 넘어서 동지대로 뽕뽕 뭉쳐서 함께 살아왔던 딸아가 어느 날 문득 "이 나이가 되도록 남자 친구가 없다면 사람들이 나에게 문제가 있는 줄 알아요."라며 남자친구를 데리고 나타났다. '그래, 결혼도 아니고 교제하는 것인데...'라며 별 생각 없이 지냈는데, 딸아리와 그 녀석(?)이 결혼을 하겠다고 했다. 정신이 번쩍 들며, 둘 다 박사수료생이라는 이유로 결혼은 아닌 것 같다고 만류했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이유는 그 녀석이 기독교인이 아닌 것이 결혼을 만류해야 할 가장 큰 이유였다. 반대의 이유를 묻는 딸에게 그 녀석이 못생겼다고 놀리며 한편으로는 아직 학생인 것이 싫다며 처음에는 좋게 타일렀다. 하지만 딸아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런 딸아리가 알미워서 집을 싸 가출을 감행하기도 했고, 세계대전에 버금갈 치열한 모녀 대전을 수십 차례 치르면서 반대에 또 반대를 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사랑은 나의 반대에 비례하여 더욱 견고해지는 것 같기만 했다. '그래, 기독교인이 아닌 것은 이해한다치자. 전도하면 되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하면 그 정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마음을 굳게 다지고 딸아리와 그 녀석에게 교회 출석을 강권하였다.

그런데 웬 걸? 그 녀석의 집안은 골수 불교집안이고 할머니는 불교 종파를 창시한 분이어서 돌아가신 후에도 끊임없

이 할머니의 설법을 가리면서 일 년에 수차례 불교 행사를 하는 집안이라는 것은 결혼 승낙 후에 알게 된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딸은 눈도 꿈쩍 안하며 그런 것 따위는 걱정하지 않는단다. 이방 나라에서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한 많은 성경 속의 인물들을 들먹이면서 성경속의 인물들처럼 두 사람의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다며 굳은 믿음과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는 가운데 '그 녀석'이 아닌 '예비 사위'가 혼자 예수중심 청년부 수련회에 참가해 성령세례를 받고 교회 신문에 투고를 하며 날마다 성경읽기와 기도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내심 '결혼하려고 쇼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진실한 아이들의 눈과 마음을 보면서 '그래,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실 거야'라는 믿음이 들기 시작했다.

결혼식 주례는 반드시 이초석 목사님을 모시고 하겠다는 '예비사위'의 뜻대로 목사님께 주례를 부탁드렸는데 사돈 집안에서 목사님 주례는 용납할 수 없으니 차라리 주례 없는 결혼을 하자고 통보해왔다. 그렇다고 뒤로 물러서서 '아, 그래요?'라며 양보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예비사위와 우리 가족은 기도하기 시작했다. 목사님께도 사정을 말씀 드렸고, 목사님은 흔쾌히 주례를 승낙하시며, 축복의 자리를 위해 지혜롭게 풀어나가자고 기도해주셨다.

결혼식 당일, 목사님의 주례사에는 신랑 · 신부가 염려한 대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약속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완고했던 사돈 내외를 비롯한 사돈댁의 'OO보살' 손님들은 목사님이 남기신 화평한 가정과 온유한 아내가 되라는 주례사가 좋았으며 주례 선생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살라는 덕담을 남기셨다고 한다.

그리고 신혼여행 후 딸아이가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사돈어른이 신당으로 딸아리 내외를 데리고 갔다고 한다. 그리고 덧붙인 말, "너는 기독교인이니까, 절은 하지 않아도 된다. 네 방식대로 기도해라. 그리고 집안에 일체의 제사나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아도 되니까, 둘이서 열심히 공부에 매진하라."고 하셨단다. 딸아리가 첫 명절을 시댁에서 보낸 후 앞으로 명절에는 차례를 지내는 대신 해외여행을 다녀오라고 허락하시고, 딸아리 내외가 주일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내색하지 않고 계신다는 말을 들었다.

그분들이 그렇게 완고하게 나오다가 뜻을 꺾은 것은 다름 아닌 딸아리의 선한 행동 덕분이라고 믿는다. 항상 생글거리면서 웃고 시어른 대하기를 마치 자기 부모님 대하듯이 살갑게 대하며 예의 바르게 가족들을 섬기는 자세가 시댁 어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아닐까? 상냥함과 친절함, 진심과 전심을 다하여 부모를 섬기고 가족과 친지들을

대하는 태도에 감동을 받으신 그분들에게 딸의 종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분들도 딸 내외와 함께 주님께 나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그 녀석'에게 공부하는 학생이라 경제력이 없다고 투정 부렸고, 나의 절친인 '설경구'보다 못생겼다는 등 이래저래 놀렸었지만, 지금은 둘도 없는 '사위'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암탉을 키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호의와 사랑을 베풀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다. 경제력이 없다고 놀렸던 사위에게는 세계 제일의 기업에서 러브 콜이 날아오고 있고, 딸아리도 연애시절보다 더 열심히 미래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못생겼던 '그 녀석'의 얼굴은 로버트 레드포드보다 멋진 사람으로 변했고, 소중한 두 아이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다.

지금은 아직 어려서 알을 낳지 못하는 암탉이지만, 조만간 나의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할지 기대해본다. 읊기서 8장 7절의 말씀과 함께 올해 달력에 적혀있는 "오늘의 계란보다 내일의 암탉을 키워라"는 목사님의 잠언은 오늘도 두 손 모으며 기도하는 나에게 다가와서 '오 자유 힘내라!'며 툭! 하고 나를 깨우고 가신다.

오자유
lovelyactor@naver.com

춘계산상집회

5월 2(월)~ 5일(목), 예수중심예루살렘기도원
호텔: 4월 26일(화) 10시 정각 홈페이지 예약(www.jcc.tv)
문의: 02-533-9191

주일 은사집회

매주 주일 오후 3시 KBS88체육관 문의: 02-533-9191 www.jcc.tv